

주가	환율	금리
-5.87	-3.10	-0.02
1,420.59 (코스피지수)	924.40원 (원/달러)	4.7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9.87 (+1.74)	
다우(4일)	12,283.85 (+89.72)	
나스닥(4일)	2,448.39 (+35.18)	
닛케이	16,265.76 (-37.83)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4.96엔 (-0.48)	
유로-달러 환율	1.3326달러 (+0.26)	
3년만기 회사채	5.11% (-0.02)	
클레리	4.46% (-0.01)	

“우수 농산물 재배합니다”

3,445 농가 ‘농산물 관리제’ 참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전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가에 빠르게 확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달말 현재 GAP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전남 지역 500여 농가를 비롯해 총 3천445개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의 965개에 비해 2천250여개 늘어난 수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들도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차원에서 GAP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GAP 농가를 늘려 전남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GAP는 110개 항목의 까다로운 관리항목을 통과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란 생산부터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 달리 민간분야가 자율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인증제도다.

금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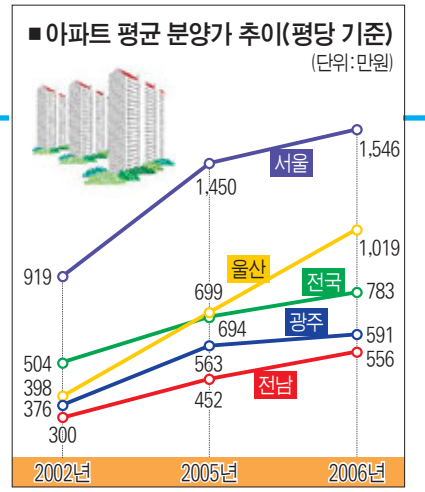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물류전문기업인 한국복합물류(대표이사 김종호)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 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경영전략발표대회’ 행사에서 공식인증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물류는 명실상부한 전문물류기업으로 인정받아 향후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란 전문 물류사업을 육성,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건설교통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국가거점물류시설인 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해온 업체로 지난 200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3차 물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참여정부 4년, 신규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액 살펴보니

서울 627만 > 전남 256만 > 광주 215만원



전국평균 279만원 올라...광주·전남 하위권 수도권-지방 집값 격차 분양시장서도 심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5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4년새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음에도 평당 분양가와 실질 상승액 등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실수요자 중심의 지역 주택시장 구조를 반영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783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 504만원

보다 55.4%(279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56%(621만원)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110%(533만원), 인천 97%(458만원), 대구 96%(420만원), 전북 90%(272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도 4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각각 57%(215만원), 85%(256만원)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2002년 평당 분양가가 376

만원에서 올해 591만원으로 올랐다. 구별로는 북구가 82%(249만원) 상승한 것을 비롯, 남구와 광산구가 각각 47%(203만원), 41%(173만원) 올랐다.

전남도 2002년 300만원에서 올해 556만원까지 뛰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가 각각 102%(294만원), 69%(211만원)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실질적인 분양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올해 평당 분양가는 각각 591만원, 556만원으로 전국 평균 783만원은 물론, 서울 1천546만원, 울산 1천199만원, 경기 1천171만원, 인천 929만원, 대구 857만원, 대전 738만원, 부산 722만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은 또 실질 분양가 상승액에서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광주·전남은 4년간 분양가 상승액이 각각 215만원, 256만원으로 나타나 집값 안정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9만원은 물론, 서울 627만원, 울산 621만원, 경기 533만

원, 인천 458만원, 대구 420만원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정책 속에서도 최근 토지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뛰었다”며 “특히 광주의 2002년 평당 분양가는 376만원으로 경기(484만원)의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5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격차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증권박물관 광주순회전

증권박물관 지방순회 전시회 개막식이 5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정의동 증권에 탁월한 실적과 김진영 광주일보사장(왼쪽 두번째), 정태석 광주은행장(세번째), 남세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네번째), 이병화 광주시 정무부시장(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증권에탁월제원이 마련한 전시회는 13일까지 계속되며 독립경제와 건국국채, 독립의연금영수증 등 일제치하나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발행된 유가증권 40여점이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1월 19조 5천억원

연말을 앞두고 11월 신용카드 신용판매액이 2003년 1월 이후 월별 신용판매액 최대치를 경신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1월 전업계 카드사와 결합은행 카드의 국내 신용판매 매출액은 19조5천580억원으로 2003년 1월 월별 신용판매액 집계기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12월로 19조5천280억원이었다.

11월 카드 사용액은 뚜렷한 소비증가 요인이 없었는데도 19조원을 넘어섰으며 추수 특수로 인해 올해 들어 가장 카드 사용이 많았던 9월 추석의 19조5천500억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11월 카드 사용액은 9월에 비해 사용액이 줄어들었던 10월과 비교해서는 6.7%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 사용액에 비해서는 14.0%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1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카드 사용을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으로 연말에 가장 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카드 사용액은 다시 올해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계자산 부동산에 78% 편중

광주 등 전국 7대도시 '가계금융 실태' 조사

광주를 비롯한 전국 7대 도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심화됐다.

삼성금융연구소는 지난 5~6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등 전국 7대 도시 4천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자산은 3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8%로 2003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금융자산은 22%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2005년)과 일본(2004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각각 39%, 42%인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

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금융자산은 13.6%, 부동산 자산은 8.1%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살고 있는 주택이 70%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에서는 저축 60%, 투자와 보험이 각각 20%였다.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900만원으로 금융기관 부채가 60%, 사금융 부채가 40%를 차지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6천600만원으로 작년 조사 때보다 7% 늘어났다. 2005년과 비교한 연령대별 간접투자

가구의 비중이 20대는 10%→30%, 30대는 13%→37%로 높아지는 등 간접투자자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자산 기준 상위 10%인 부유층의 경우 미국에 비해 주식 직접투자자 간접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해-서강정보대 산·학협력 체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경우)와 서강정보대학이 최근 서강정보대학 내에서 산·학협력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해는 서강정보대학의 발전과 우의증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보해는 서강정보대학과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식정보의 교환 및 인적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일부

무연료 냉·난방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1588-8717, 062-266-7641

산행안내

산행준비물

산행코스

산행시간

산행요금

산행일정

산행장소

산행방법

산행안전